

외설만큼 무서운 중독

우리 아이 TV 폭력에서 구출하기

부모넷 www.bomonet.or.kr

혹시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놀 때 싸움놀이를 하거나 만화 영화에서 본 로봇 흉내를 내며 금방이라도 싸울 듯한 태도를 보이며 영상물만 보는 재미에 빠져 있다면 무엇보다 부모가 텔레비전을 함께 시청하면서 적절히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적인 것에 관대한 경우 많아

텔레비전 영상물의 폭력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인 데다, 채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텔레비전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훨씬 커졌다. 2~3살 난 아이도 리모콘 하나로 간단히 온갖 종류의 영상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심각성에 견줘, 자녀들의 텔레비전 시청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오히려 외설적인 장면에 비해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 적절한 지도 꼭 필요

특히 어린이 채널이나 만화 채널에서 방영되는 만화 프로그램의 경우, 부모들은 으레 “만화는 애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니까 괜찮겠지”하고 방심하기 쉽다.

그러나 대부분의 만화는 뚜렷한 선악 구도를 바탕으로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떤 폭력도 용납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심어준다.

그러나 다채널 시대에 모든 폭력 영상물로부터 아이들을 떼어 놓기는 어렵다. 아이들이 폭력 영상을 접하게 될 가능성은 하루 종일 열려 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시청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폭력적인 장면에 대해서는 만화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뉴스의 경우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의 보도를 접하게 되면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뉴스를 본 느낌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텔레비전 제대로 보기’ 요령 (영상문화연구회 www.yeye.or.kr)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도록

텔레비전은 아이들에게 대답해주거나 마주보고 웃어주지 않는다. 부모의 구실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에도 부모가 옆에 앉아 프로그램 내용과 주제에 대해 대화를 유도하고 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대화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몰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을 걸러가면서 볼 수 있어서 좋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위험한 장면이나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텔레비전 내용이 현실이 아닌 허구의 세계임을 깨닫게 한다.

시청 가이드 라인 만들기

텔레비전은 아무 프로그램이나 습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보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때 부모의 일방적인 의견보다는 아이의 생각도 참고해 온 가족이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밥을 먹을 때는 끈다’, ‘일주일에 하루는 텔레비전 안보는 날로 한다’ 등이 그 예다.

텔레비전 시청에도 계획이 필요

볼 프로그램과 시간을 미리 정한 뒤 서로 약속을 한다. 약속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반드시 자기 손으로 텔레비전을 끄도록 한다. 보고 있던 프로그램이 끝난 뒤 이어 나오는 예고편, 광고 등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청 시간을 제한한다

만 두살까지는 텔레비전을 아예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 3살 이상 어린이도 연속해서 30분 이상 보지 않도록 하고, 하루에 최대 두 시간을 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장시간 텔레비전 시청을 막는 방법으로 녹화를 활용해도 좋다.

